



## 2007년 북한 대외경제 전망

조 명 철 동북아경제협력센터 통일국제협력팀장 (mjcho@kiep.go.kr, Tel: 3460-1185)

홍 익 표 동북아경제협력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iphong@kiep.go.kr, Tel: 3460-1041)

정 승 호 동북아경제협력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two@kiep.go.kr, Tel: 3460-1055)

### 주요 내용

- 본 보고서에서는 2006년도 북한 대외경제의 부문별 실적들을 분석하고, 향후 핵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다양한 환경에서 북한의 대외경제를 전망해보려고 함.
- 북한은 2007년 신년사설에서 ‘경제사업’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외경제 활동을 보다 적극화 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에 국제적 제재의 상황 하에서도 예년 수준인 30억 달러보다 약간 증가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 2002년 7.1조치 이후 기업의 독립채산제가 확립되고 비즈니스 관행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대북투자는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북한의 핵실험이후 대북투자가 전무해 진 것으로 분석됨.
- 2007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은 △북핵문제의 타결, 북한 대외경제 환경의 개선(상황전개 I) △북핵문제의 담보상태, 북한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지속(상황전개 II) △북핵문제의 합의 결렬-북한 대외경제 환경의 악화(상황전개 III) 등으로 전개될 것이며, 각 시나리오에 따라 대외경제의 실적이 다르게 나타날 것임.
- ‘상황전개 I’ 경우 북한 무역총액은 35억~37억 달러, 대북 투자는 4억~6억 달러 내외일 것으로 추정되며, ‘상황전개 II’ 경우 무역총액은 30억 달러, 대북 투자는 4천만~6천만 달러 내외일 것으로 추정되고, ‘상황전개 III’의 경우 무역총액 20억 달러, 대북투자는 신규투자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

## 1. 문제 제기

- 2006년 7월과 10월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은 UN의 대북제재를 불러 오게 되었고, 제재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음.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외에도 미국과 일본은 독자적인 추가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대외경제를 압박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2006년도 북한 대외경제의 부문별 실적들을 분석하고, 향후 핵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다양한 환경에서 북한의 대외경제를 전망해보려고 함.
- 보고서에서는 2007년 북한의 대외경제를 예측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음.
  - 첫째, 정책변화 부문으로서,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 정책변화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7년도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을 전망해보고자 함.
  - 둘째, 대외경제의 실적부문으로서, 2006년도 북한 대외경제의 주요 실적을 무역부문과 투자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특히 제재 이후에 나타난 실적변화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셋째, 2007년도 북한의 대외경제를 전망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핵문제의 진전상황을 △북핵문제의 타결, 북한 대외경제 환경개선 △북핵문제의 담보상대, 북한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지속 △북핵문제의 합의 결렬, 북한 대외경제 환경의 악화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상황 하에서 대외경제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함.

## 2. 북한의 2007년도 대외경제정책 방향

- 전통적인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는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관리하에 호혜평등 및 유무상통의 원칙을 바탕으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보완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조는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에너지난 원부자재난으로 인한 생산기반의 붕괴 등으로 인해 내외부로부터 변화의 압력을 받게 되었음.

- 대외경제 전반의 위기감 속에서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책전환 및 변화를 시도하였음.
  - 첫째, 경제특구 설치를 통한 외자유치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음.
  - 북한은 1992년 라진선봉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이후, 2002년 7.1조치 이후 신의주, 개성, 금강산 등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였음.
  - 북한의 경제특구를 통한 외자유치 확대 정책은 2002년 10월 이후 북핵문제의 제기, 미국의 경제제재 지속, 북한의 시장경제에 대한 준비 부족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음.
  - 둘째, 과거 사회주의권 시장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시장다변화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우호적 국가와의 교역편중 현상은 지속되었음.
  - 기존의 사회주의국가들이 붕괴된 이후, 북한은 유럽 및 아세안 국가들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그러나 시장다변화 정책은 정책적 목표에 그치고 우호적 국가와의 교역을 더 중시한 결과 북한 무역의 5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할 정도로 대중 의존도가 심화되었음.
  - 셋째, 대외경제관계에서 실리주의를 추구하고 효율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02년 7.1조치 이후, 북한의 공장기업소 및 기관들은 실리사회주의에 입각하여 경제적 이익의 창출 및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대외경제부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넷째, 북한은 직접무역, 중개무역, 가공무역 등 무역형태의 다양화를 추진해왔음.
  -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을 경유한 중개무역과 가공무역이 주요한 무역형태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음.
  - 다섯째, 기구개편을 통한 대외경제업무의 분권화 및 책임성을 강화하였음.
  - 특히 경제사업에서 내각의 권한과 역할이 부각되면서 대외경제부문에서도 내각 무역성의 권한과 비중이 크게 높아졌음.
  - 개별 공장 및 기업소들도 대외무역권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대외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함.
  - 여섯째, 북한기업 및 기관의 해외진출을 통한 외화수입을 증대하였음.
  - 부족한 외화확보를 위해 북한 기관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진출방법은 △인력수출 △식당업 등으로 연간 수입규모는 4,000만~6,0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표1. 북한의 해외진출기업을 통한 외화수입 규모(추정)

수입원	수입규모(연간 매출기준)
인력수출(건설, 봉제, 임업 등)	3,000만~4,000만 달러
식당업	1,300만 달러 이상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북한의 2007년도 대외경제정책은 이와 같은 기존의 노선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신년사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금년도 북한의 최고 과제가 '경제사업' 으로 제시된 만큼 대외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2007년도 신년사설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주목되는 점은 예년과 달리 경제부분을 제일 먼저 강조한 점임.

- 신년사설은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 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문제를 푸는 데 국가적인 힘을 집중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음.

- 신년사에는 대외경제부문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대외경제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북한 당국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2007년에도 다양한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예상되는 2007년도 주요 대외경제활동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안정적인 자원(에너지, 원자재 등) 확보

- 원유, 코크스탄 등 에너지자원 및 핵심 산업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국러시아 등 전통적 공급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

- 둘째, 외화수입의 확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

- 수출확대를 위한 국내적 생산기반의 정상화와 경쟁력 있는 제품의 발굴 및 생산

- 무역형태의 다양화,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적극 추진

- 북한기업의 해외진출, 제3국과의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노무인력의 해외진출 등을 통한 외화수입 확대를 적극 추진

- 셋째, 투자유치를 통한 개발과 협력 모색
  - 경제특구의 추가지정을 통한 외자유치
  - 기존 경제특구의 확대 및 장애요소 제거를 통한 외자유치
- 그러나 북한의 2007년도 대외경제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의 진전 여부, 주요국과의 정치·외교적 관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망이 불확실하고 유동적임.

### 3. 2006년 북한의 대외경제 평가

#### 가. 무역부문

- 2006년 대외무역 규모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에 국제적 제재의 상황하에서도 예년 수준인 30억 달러보다 약간 증가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sup>1)</sup>
- 이는 여타국가와 무역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무역의 60%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및 태국과의 무역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데 기인함.
- 중국
  -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4억 6,800만 달러로 2005년 대비 5.8% 감소한 반면, 수입은 12억 3,200만 달러로 13.6% 증가, 무역총액은 17억 달러로 지난해와 비해 7.5%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는 7억 6,400만 달러에 달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함.

표 2. 2006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4	582	47.2	795	26.5	1,377	34.5	-213
2005	497	-14.7	1,085	36.5	1,582	14.9	-588
2006	468	-5.8	1,232	13.6	1,700	7.5	-764

자료: 무역협회(www.kita.net)

1) 이는 남북교역을 제외한 수치임. 2006년도 남북교역액은 13억 4,974만 달러로 전년대비 27.8% 증가하였음.

-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어패류와 철강의 수출액이 50% 이상 급감하면서 전체 수출액 감소를 주도하였음.
- 특히 어패류의 수출감소는 수출단가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어패류 수출단가는 단가가 2005년 42.6% 떨어진 데 이어, 2006년에도 27.3% 하락하였음.
- 연료, 철강, 기계류 등 산업자재와 식용 옥류, 제분류, 플라스틱류 등 생필품 위주의 대중국 수입구조는 2006년에도 큰 변화가 없었음.
- 다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연료 구입비용이 3억 4,700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입액의 20% 이상으로 비중이 증가한 것이 하나의 특징임.

**표 3. 북한의 대중국 원유수입(HS2709) 추이**

연도	수입 단가		수입액		수량	
	달러/kg	증가율	백만 달러	증가율	만 톤	증가율
2004	0.26	24.2	139	15.1	53.2	-7.3
2005	0.38	44.3	198	41.9	52.3	-1.7
2006	0.47	24.6	247	24.9	52.4	0.2

자료: 중국해관총서

- 북한 핵실험 이후인 10월~12월 사이에도 원유와 쌀 등 핵심물자에 대한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전년대비 동기 대비 오히려 증가하였음.
- 즉 중국은 경제제재의 수단으로 이러한 핵심물자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표 4. 북한 핵실험 이후(10~12월) 중국의 원유와 쌀 품목 대북 수출추이**

(단위: 천 달러, %)

월별	원유(HS2709)			쌀(HS1006)		
	2005년	2006년		2005	2006년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금액	증가율
10월	15,687	29,423	87.6	650	2,165	233.3
11월	17,435	20,535	17.8	632	1,118	76.9
12월	19,689	21,325	8.3	218	1,191	447.5

자료: 무역협회(www.kita.net)

■ 태국

- 북한의 대태국 수출은 1억 6,800달러로 2005년 대비 35.4% 증가하였고, 수입은 2억 2,700달러로 10.1% 증가, 무역총액은 3억 9,500만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해 19.6% 증가세를 보였음.

**표 5. 2006년 북한의 대태국 무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4	91	79.1	239	17.4	330	29.7	-148
2005	124	36	206	-14	330	-0.2	-82
2006	168	35.4	227	10.1	395	19.6	-59

자료: Kotra & World Trade Atlas

- 주요 품목의 수출액이 대부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북한의 대태국 수출규모가 크게 신장되었음.
- o 특히 과거 거의 실적이 없었던 보석류(금)의 수출이 2006년 들어 3,5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수출 1위 품목이 되었음.
- 북한의 대태국 수입규모도 기계류, 곡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함.
- o 2006년 곡물 수입은 7만 달러 정도의 미미한 실적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4년 4,200만 달러에서 2005년 2,600만 달러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급감 추세를 보이는 것임.

■ EU

- EU는 북한의 제3위의 교역대상국으로 2005년 2억 9,200만 달러의 교역규모를 기록하여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 o 2005년 기준으로 EU 개별국가 별 교역규모 순위는 독일 6위, 네덜란드 7위, 프랑스 8위, 스웨덴 10위임.
- 2006년 11월 현재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수출은 5,900만 달러로 동기대비 4.3% 늘어난 반면, 수입은 1억 5,600만 달러로 동기대비 16.7% 감소하여, 무역 총액은 2억 1,400만 달러로 11.8% 감소하였음.

**표 6. 2006년 북한의 대EU무역현황(2006년 11월 기준)**

(단위: 천 달러, %)

북한의 수출 (1~11월)			북한의 수입(1~11월)			무역총액		
2005년	2006년	증감률	2005년	2006년	증감률	2005년	2006년	증감률
56,620	59,054	4.3	186,779	155,623	-16.7	243,399	214,677	-11.8

자료: World Trade Atlas

- 북한의 수출 증가는 의류 수출의 호조에 기인한 바가 크며, 수입 감소는 핵실험 이후 UN의 대북 제재에 따라 기계류, 전자기기류 수입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 EU의 대북제재 내용에는 △무기 금수와 △핵 및 미사일 기술 △ 사치품 금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EU국가들과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들에 대한 검색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러시아

- 2005년도 북한의 대러 교역 총액은 2억 3,200만 달러로, 2004년 2억 달러를 넘은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음.
- 하지만 2006년 9월까지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무역 총액이 1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2% 감소세를 보여 4/4분기 큰 폭에 증가가 없을 경우 무역총액이 2억 달러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 대러 교역액 감소는 에너지부문의 수입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반해 수출은 동기 대비 300% 가까운 신장을 보였는데, 이는 북한의 대러 수출이 미미한 수준으로 전자기기 등 일부 품목에서 일시적으로 수출이 폭등한 데 따른 것임.

표 7. 2006년 북한의 대러시아 무역현황(2006년 9월 기준)

(단위: 천 달러, %)

북한의 수출(1~9월)			북한의 수입(1~9월)			무역총액		
2005년	2006년	증감률	2005년	2006년	증감률	2005년	2006년	증감률
3,602	14,096	291.3	165,848	126,249	-23.9	169,450	140,345	-17.2

자료: World Trade Atlas

■ 일본

- 2005년도 북한의 대일 교역 총액은 1억 9,400만 달러, 2001년 이후 매년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왔음.
- 일본은 미국과 함께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동시에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현재 일본이 개별국가 차원에서 취하고 있는 대북제재 조치는 △북한선박의 입항금지 △북한 물자의 수입금지 △북한 국적자(재일동포 제외)의 입국 금지 △미국 등과 함께 대북 해상 봉쇄 및 검색에 자위대 참가 △금융동결 조치를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물론 위폐제조나 마약 판매 의혹 단체와 개인으로까지 확대 △유엔 결의안의 '사치품(luxury goods) 금수조치'에 따라 고급 자동차, 최신형 전자제품, 고급 의류 및 시계, 외국산 양주 및 화장품, 고가의 식료품 등의 대북 수출 금지 △한국이나 중국 등을 경유한 우회무역 단속 등임.



- 이러한 경제제재조치의 영향이 수치로 입증되는데, 11월 기준으로 교역총액 1억 2,000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24.2%의 감소하였음.

**표 8. 2006년 북한의 대일본 무역현황 (2006년 11월 기준)**

(단위: 천 달러, %)

북한의 수출(1~11월)			북한의 수입(1~11월)			무역총액		
2005년	2006년	증감률	2005년	2006년	증감률	2005년	2006년	증감률
124,190	76,417	-38.47	56,905	43,160	-24.2	181,095	119,577	-24.2

자료: World Trade Atlas

- 특히 핵실험 이후인 10월 한달간 북일무역 총액은 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5.6%, 11월에는 64만 달러로 95% 격감하였음.

**표 9. 북한 핵실험 이후 북일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월별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무역총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0월	4.9	-52.7	2.1	-61.2	7	-55.6
11월	0.36	-96	0.28	-94	0.64	-95

자료: 일본세관

## 나. 투자 부문

- 북한의 전체 외자유치액은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우나, 최근의 대북투자는 대부분 중국자본인 것으로 분석됨.
- 2002년 7.1조치 이후 기업의 독립채산제가 확립되고 비즈니스 관행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대북투자는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북한의 핵실험이후 대북투자가 전무해진 것으로 분석됨.
  - 중국 대북투자의 상당 부분은 2005년과 2006년 상반기에 집중되었음.<sup>2)</sup>
    - 중국기업의 대북투자 누계는 2006년 상반기까지 44개 사업으로 투자합의액은 2억 1,935만 달러이며, 실제투자액은 1억 2,722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5년에는 13개 사업에 합의액이 1억 345만 달러이며, 실제투자액은 5,369만 달러였으며, 2006년 상반기에는 14개 사업에 합의액이 8,643만 달러, 실제투자액은 5,874만 달러였음.
  - 중국기업들은 2002년 이후 북한내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지하자원 개발, 기반시설, 유통업, 제조업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2) 『연합뉴스』(2006년 10월 16일자), 「北 핵실험, 중국 민간기업 대북 투자에 암영」.

- 지하자원 개발 부문이 대북투자의 중점대상이 되고 있으며, 개발된 지하자원의 수송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투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도 일부 투자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투자영역이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양국은 2004년 2월 「상품 규격화 및 품질분야 협력협정」, 2005년 3월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이어, 2005년 10월 「경제·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투자협력의 기반을 확립하고 있는 추세였음.
- 그러나 2006년 북한 미사일발사실험과 핵실험으로 북한의 투자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중국 기업들의 대북투자가 거의 중단된 것으로 알려짐.
- 북핵 문제의 장기화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된다면,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해온 중국의 대북투자는 급격한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임.
- 태국도 대북투자에 참여하고 있으나, 2006년 12월 현재까지 Loxley Pacific사의 투자사례가 유일하게 확인됨.<sup>3)</sup>
- 태국 Loxley Pacific사는 북한의 Korea Post & Telecommunication사와 Joint Venture 형태로 북한 경제특구인 나진·선봉 지역에 통합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에 투자하였고, 1995년부터 2021년까지 27년간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임.

## 4. 2007년 북한 대외경제 전망

### 가. 북한의 대외경제 상황전개 시나리오

- 2007년도 북한의 대외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변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전 및 합의 여부임.
- 향후 북핵문제의 해결 여부와 북한 대외경제를 둘러싼 상황전개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상황전개 I: 북핵문제의 타결, 북한 대외경제 환경의 개선

3) KOTRA 『북한경제속보』 (2006. 12), 「태국의 대북무역 및 투자현황」.

- 상황전개 II: 북핵문제의 담보상태, 북한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지속
- 상황전개 III: 북핵문제의 합의 결렬, 북한 대외경제 환경의 악화

■ 각각의 상황전개에 따른 2007년도 북한 대외경제를 교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전망하고자 함.

## 나. 상황전개별 전망

### 1) 상황전개 I: 북핵문제의 타결, 북한 대외경제 환경의 개선

- '상황전개 I' 은 북핵문제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타결되고, 이후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및 주요국과의 관계개선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는 것을 전제로 함.
- 6자회담이 안정적·정례적으로 개최되고, 2007년 상반기 중에 북핵해결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이 타결되어야 함.
  - 이 경우 핵실험으로 인한 기존의 유엔 및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북 경제제재는 전면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북핵해결 차원에서의 경제적 지원(보상)의 경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물론,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한 에너지 협력,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업부문의 개발협력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북한과 미국일본을 비롯한 서방권 국가들간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중국·러시아 등 전통적 우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및 외교관계도 한 단계 제고될 것임.
- 이와 같이 2007년도 상반기 중에 북핵문제가 타결된다면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예상되는 가시적 성과들은 다음과 같음.
  - 유엔 및 개별국가(특히 미국, 일본)들의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대외경제협력의 활성화
  - 북핵문제 타결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국제사회의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 추진
  - 북중경협 및 남북경협의 확대 발전
  - 해외기업들의 대북투자 활성화

## 상황전개 I의 2007년 대외경제 전망

### ■ 무역

- UN 경제제재 및 북핵사태 이전의 대북경제제재 조치들로 인한 교역제한이 일정부분 해제됨에 따라 기계류, 전자기기, 원자재류 등의 교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북한상품의 부재 △낮은 산업 가동률 △마케팅능력 부족 등이 교역 증가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북한의 대외교역이 2000년 이후 연평균 8%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2007년에는 예년성장률보다 최소 2배 수준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며 이 경우 무역총액은 **35억~37억 달러**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 투자

-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타결될 경우 회담 참가국 및 국제사회는 핵포기에 따른 보상(incentive) 차원에서 북한의 에너지 및 SOC 부문 등에 대한 대규모 개발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9.19 공동성명 합의 당시 북한에 대한 에너지 협력사업(중유제공, 전력송전, 경수로 건설 등)에 대한 예상비용이 약 80억~14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었음.
  - 이러한 보상이 10년 정도의 기간동안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연간 8억~14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가 가능함.
  - 그러나 2007년의 경우 북핵 타결이 상반기 내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연내에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2007년도 지원성 투자는 초기 사업추진 및 관련 사업의 조사비용 등을 위해 약 1억~2억 달러 정도의 소규모 투자가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북핵사태 이전까지 급증세를 보였던 중국기업의 대북한 진출러시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크며, 중국 정부차원의 지원성 투자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2006년 상반기 중국의 대북투자가 5,800만 달러 정도임을 감안하면, 2007년도 중국기업들의 대북 투자액은 1억 달러 선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북중 접경지역의 인프라 확충에 대한 다양한 사업계획(나진항 개발프로젝트, 훈춘-나선 도로연결 및 확장계획, 단동-신의주간 신압록강대교 건설프로젝트 등)을 준비해왔는데, 북핵타결 이후 이러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경우 1억 5,000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정도의 대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 등 서방기업들의 대북투자도 가능하겠지만, 북한시장 내의 열악한 투자환경, 법제도 미비, 시장 마인드 부족 등 투자위험이 높기 때문에 1천만 달러 이하 시장조사 차원의 투자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종합하면 '상황전개 I'의 경우, 대략 **4억~6억 달러**의 대북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2) 상황전개 II: 북핵문제의 담보상태, 북한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지속

- '상황전개 II'는 북한과 미국이 기존의 입장에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은 채, 6자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공전되거나 담보상태에 빠지게 되고,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은 핵문제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함.
- 이 경우 6자회담은 중단과 개최가 반복되는 가운데, 뚜렷한 가시적 성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될 것임.
- 북한은 기존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채 추가 핵실험의 위협 등을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나 압박에 대응할 것임.
- 반면 미국은 BDA로 상징되는 대북 금융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유엔차원의 대북 경제제재를 한국, 중국 등이 준수하도록 외교적 압력을 강화시켜나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일본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및 납치문제 등을 전면적으로 제기하면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자위대의 군사조직화, 대북 경제제재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상황전개 II의 2007년 대외경제 전망

#### ■ 무역

-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이나 외부로부터의 대북지원 등은 상당히 위축되거나, 2006년 수준에서 정체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의 북한의 교역수준은 제재하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최소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우선 북핵 위기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채 유엔차원의 제재가 지속된다면, EU 및 아세안 국가 등과의 경제협력은 전반적으로 2006년에 비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도 증가한 북중경협은 북핵문제가 담보상태에 빠지고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이 지속되는 2007년에도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중국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해 양국간 교역 및 경제협력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북한 대외경제부문에서의 대중 의존도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북한은 미국, 일본 중심의 경제제재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북중경협과 함께 북러간의 경제협력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북러경협은 최근 2~3년간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에너지부문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 결국 북핵문제 해결이 담보상태에 빠지고 대북한 경제제재로 인한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북한의 대외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강화 등을 통해 경제난을 타개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북한의 붕괴나 전면적 고립 등을 원치 않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경제협력과 원조 등을 통해 북한은 전년도 수준의 대외경제 규모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종합하면 '상황전개 II'에서의 2007년 무역총액 수준은 2006년도 수준인 **30억 달러** 내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 투자

-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중국 동북 3성 기업 중심으로 이미 투자하기로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대북 투자 예상액은 2006년 수준인 **4,000만~6,000만 달러** 정도일 것으로 예상됨.

### 3) 상황전개 III: 북핵문제의 합의 결렬, 북한 대외경제 환경의 악화

- '상황전개 III'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6자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그 한계를 참가국 모두가 인정할 경우 북핵상황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북한에 대한 전면적 봉쇄조치 및 미국의 군사적 조치 가능성의 제고 등과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전제로 함.
  - 이 경우 6자회담의 틀은 해체될 것이며, 북미관계의 위기감이 한층 고조될 것임.
  - 또한 유엔과 개별국 차원의 대북제재 수준도 더욱 강화되거나 추가적 제재조치가 발표됨으로써 사실상의 대북 전면 봉쇄수준의 경제제재가 이루어 질 것임.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역시 미국, 일본 등의 반대로 인해 인도적 지원 물자조차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북한의 식량난은 더욱 가중되어 대량의 기아 및 탈북 난민 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상황전개 III의 2007년 대외경제 전망

#### ■ 무역

- 북한의 최대 협력국이자 유일한 지원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고 미국의 강력한 외교적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경제협력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임.
  - 중국으로서는 전면봉쇄에는 반대하겠지만, 일정 수준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가시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중경협 역시 전년도에 비해 위축 또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결국 북핵문제로 인한 대외경제 환경의 악화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면적인 경제봉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여타 국가와의 경제협력은 물론 중국과의 경협 역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북한의 대외경제는 전년 수준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임.
- 북핵협상 결렬에 따른 대북 전면봉쇄가 2007년 하반기에 본격화된다면 중국 이외의 국가들과의 교역은 거의 중단될 것이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교역도 일정 수준의 위축 및 감소가 불가피할 것임.
- 2006년도 북한의 대외교역이 약 3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바, 이중 50%는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고 하반기에도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교역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2007년도 북한의 교역규모는 20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 투자

- ‘상황전개 III’에서는 신규투자가 거의 중단될 것으로 전망됨.

표 10. 상황전개별 2007년도 북한 대외경제 전망

구 분	상황전개 I	상황전개 II	상황전개 III
6자회담	회담의 지속 및 정례화	불연속적 회담 개최	중단
북핵해결 합의	로드맵 합의	합의 지연	미합의
북미관계	급진전	냉각, 무시	위기고조
대북제재	해제	현 수준 유지	추가적 제재, 전면봉쇄
대북 경제지원	경제회생 차원의 대규모 지원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을 허용	대북 지원의 전면 중단
대외관계	북한과 미·일·EU 등과의 관계개선	북·중·러 협력 유지, 미·일·서방권 관계 냉각	북한의 전면적인 고립
북중경협	활성화	정체상태, 대중의존도 증가	대북제재에 따른 경협 위축, 감소
북한 무역	35~37억 달러	30억 달러 내외	20억 달러
대북 투자*	4~6억 달러	4,000~ 6,000만 달러	신규투자 중단

주: \* 대북투자액 추정에서 '상황전개 I'은 북핵 타결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보상을 포함한 것임.